국내
마감시황

2025. 11. 17.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주도주 반등하며 상승 마감

외국인, 코스피 5천억원 순매수
반도체, 조선, 방산주 강세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4,089.25pt (+1.94%)	902.67pt (+0.53%)	576.65pt (+2.35%)
달러-원 환율	**韓 10년물 국채 금리**	**S&P500 선물**
1,458.50 원 (+45.4 원)	3.3150% (-0.2bp)	6,779.50pt (+0.36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-4,952 억	+558 억	-1,239 억
외국인	+5,182 억	-358 억	-712 억
기관	-56 억	+363 억	+2,230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급락을 딛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 인상에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. 이날 KOSPI는 1.94%, KOSDAQ은 0.53% 올랐습니다.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4.1조원, KOSDAQ 거래대금은 8.1조원을 기록했습니다.
- 외국인은 KOSPI를 5천억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. 이들은 KOSPI에서 전기/전자와 전기/가스 업종을 매수했고, 금융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반면, KOSPI 기관 수급은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이들은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, 제약과 기계/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삼성전자가 3.5%, SK하이닉스가 8.2%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. 3분기 호실적과 빅테크향 납품 기대감에 이수페타시스가 반등했습니다. 한·미 조선업 협력이 재차 부각되며 조선주가 상승했습니다. 그 외 바이오, 방산주가 올랐습니다. 반면, 지스타 종료 이후 게임주가 하락했습니다. 금융주가 차익 실현 지속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이수페타시스(+18.36%), SK하이닉스(+8.21%), HD현대미포(+3.90%)가 올랐고, 메리츠금융지주(-9.02%), KB금융(-2.08%), 엔씨소프트(-1.94%)가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